

이긴자 일대기 [20]

마귀 취급받으면서 자존심을 죽이는 연단

아브라함이 첫째 천사로 첫 번째 인을 때는 자요, 두 번째는 이삭, 세 번째는 야곱이며 네 번째는 야곱의 장자 단입니다. 이렇게 땅의 4수를 채우고 그 다음에 하늘의 3수가 되는 영모님과 해와 이긴자 그리고 아담 이긴자로 채워짐으로써, 하늘의 3수와 땅의 4수가 합해진 7수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이 일곱째 천사로 일곱째 인을 때는 구세주가 됩니다. 하늘의 3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라고 했고 이어서 54절에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했습니다.

소사 신앙촌 초창기에 일곱째 천사가 영모님 댁에 들어가곤 했는데, 영모님은 신앙촌에서 나오는 새로운 물건, 새로운 빵이라든지 요강이라든지 새로 나오는 모든 것을 시식할 때면 일곱째 천사를 꼭 불러서 당신 대신 시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한번 먹어봐!"

그러면 너무 황송하고 죄송해서 "영모님이 먼저 잡수셔야 제가 먹지, 어떻게 제가 먼저 먹습니까?"하면, "아니야, 네가 먼저 먹어야 돼. 네가 먼저 먹어 보고 좋다면 되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시식을 하고 맛이 좋다고 말씀드리면, 영모님께서 "그럼, 됐어!"라고 하시고는 정작 당신 자신은 시식도 안하시고 병글 병글 웃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영모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모님이 잠깐 방을 비우면 "내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는 장차 이 세계에서 제일 큰 단에 설 자야. 그러나 이 말은 누구한테도 하지 마라."하고 당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조화성님이 영모님 앞에 누우면 손을 대지 아니하고 영적 안찰을 해주심

그런데 일곱째 천사는 군인의 신분으로 온양 제단 전도사 교역을 맡다가 영모님이 "이제 단에 그만 서, 계속 단에 서면 이길 수가 없어. 이긴자가 될 수 없어. 조 중위는 앞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단에 세울 거야." 하시므로 교역자 생활을 그만 두었는데, 곧이어 "이제 조 중위는 안찰 안 받아도 돼..." 하시며 안찰을 안 해주시므로 마귀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신도들이 안찰받기 위하여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데, 일곱째 천사 조 중위로 그 대열에 끼어 서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가까이 가게 되면, 일곱째 천사를 힐끔힐끔 보시면서 "안찰 안 받아도 되는데..." 하시면서 혼잣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차례가 되어 영모님 앞에 누우면 손을 대시지 않아도 은혜를 부여 주시는 영적 안찰을 해 주시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양동으로 물을 붓는 것 같이 시

원한 은혜체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모님께서 육적으로는 다른 전도사들을 보고 "전도사, 요즘 전도 잘되나?" 하는 식으로 탄전을 부리시다가 일곱째 천사의 영적 안찰이 닦였다 싶으면 눈짓으로 대기 중인 안내원에게 고갯짓을 하며 데려가라는 신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세 명의 안내원이 일곱째 천사를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육군 중위 계급장이 붙은 장교복을 입은 채 얼굴이 빨개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끌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창피를 당하고도 또 가면 끌어내고 그래도 또 가고 하니 일곱째 천사를 아는 전도관 식구나 교역자들은 "조 중위는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이야기를 입에 오르내리고 했던 것입니다.

신사 양복에 침을 뱉어도 무저항으로 일관하다

이렇게 사람들 눈을 속이고 손으로 안찰을 안 해 주시기를 삼 년이나 계속하시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일곱째 천사가 마귀라서 안찰을 안 해 주시는 것같이 보여, 수많은 전도관 교인들은 일곱째 천사가 마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귀라면 안찰받기 위하여 차례를 기다리는 대열에 끼일 수도 없으며, 만약 끼여 있다면 영모님 가까이 가게 되면 세력이 가는고로 "저 마귀새끼 당장 꼬집어내!" 하시며 못오게 하셨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전도관 식구들 간에 일

곱째 천사가 마귀라서 영모님이 안찰을 안 해 주신다는 소문이 퍼져버려 모든 사람들이 일곱째 천사를 외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일곱째 천사에게 직접 전도를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맛을 보고 이모저모로 신세를 졌던 사람까지 일곱째 천사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오늘은 마귀 새끼를 보게 돼서 기분 잡쳤다."하며 땅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사 양복에다 가래침을 뱉기도 했는데, 그러면 일곱째 천사는 한마디 따꾸도 하지 않고 길가에 자라고 있는 풀을 뜯어 가래침을 닦아 내곤 하였던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원수 중의 원수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먹으로 한 대 치면 박살이 날 정도의 불품없고 나약한 형제를 시켜, '나'라는 것이 원수중의 원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라고 하는 자존심 마귀를 뺏아주시려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천사에게서 공부한 제자가 저 멀리서 보고 피해 갈 때에는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한때 일곱째 천사가 영등포 당산동 지관에 다녔을 때 나중에 소사 신앙촌 천부장이 되었던 한00 권사를 전도하였는데 그 아들 김00도 군입대 할 때 일곱째 천사 조 중위가 카츄사로 주신 해 주었으며, 의사인 남편 김 선생이

영등포에서 고려 엑스레이병원 원장으로 있을 때 일곱째 천사가 피의 원리를 논하며 전도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그 한00 권사는 소사 신앙촌 'C 5동 4호실'에 있는 일곱째 천사의 집을 찾아와 "천부장 권한으로 명하니 조 중위 마귀는 나가라."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는 끝까지 나가 지 않고 버티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너무 심하게 행패를 부리기에 일곱째 천사가 참다못해 한00 천부장에게 말하기를, "그럼, 너의 남편도 내가 여기서 나가기를 원하는지 한번 가서 물어보겠다."라고 하니, 한00 천부장은 얼굴색이 변하더니 "제발 남편한테 가서 말하지 마라." 하면서 짹짹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천부장의 남편이 이렇게 핍박한 일에 대해서 알게 되면 부인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 뻔히 내다보기에, 일곱째 천사는 입을 열지 아니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넘어갔던 것입니다.

너희들, 믿으려면 조 중위만큼만 믿어!

언젠가 조성옥 전도사가 논산 연무대제단에 있었을 때인데 전도가 안 된다고 하여 일곱째 천사에게 대신 단에서 달라고 하므로 일곱째 천사가 몇 번 단에 서게 되니 은혜창파가 되고 부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옥 전도사가 하나님의 깊은 사정도 모르고 영모님께 가서 "조 중위 전도사를 다

른 사람들은 마귀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마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단에 서게 허락해 주십시오." 한 바 있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 한번은 몇몇 전도사들이 영모님께 "조 중위를 상대해도 되겠습니까?"하고 여쭙곤 했는데 영모님은 "너희들, 믿으려면 조 중위만큼만 믿어!" 그리고 "이 소리 조 중위한테 가서 하지 마! 이 말을 전하면 조 중위를 죽이는 거야. 조 중위가 교만해질 수 있어." 하신 바 있다고 그 소리를 조성옥 전도사가 일곱째 천사한테 와서 전해 준 일도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 외에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이긴자가 되기 전에 수십 년간 마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귀라고 하면서 아무도 일곱째 천사를 상대해주지 않았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침을 뱉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사귀었지, 신앙이 없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존심이나 내세우는 마귀새끼와는 상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죄에 오염되어 자신도 같이 마귀가 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에도 '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민족, 앞으로 전세계 부모국(父母國)이 된다

세계 석학 및 예언가들 우리나라 주시하고 있다

인류의 삶의 궁극적 목표는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데 있다. 장구한 세월동안 인류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그 아름답고 꿈 같은 세상을 표현하여 지상천국, 이상향, 태평세계로 부른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려고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 지금도 그 꿈은 멈추지 않고 있다.



들이 '열쇠의 나라' 한국에서 풀릴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한국을 그는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했다.

강증산은 증산도전에 "부처와 예수의 기원은 거두었다. 도덕 사회가 실현될 성지로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민족의 우수성 바로 알자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은 중국의 불교를 해동불교로, 중국의 유교를 조선유학으로 발전시켰다. 로마의 카톨릭은 한국의 기독교로 발전시켜 역으로 세계로 펼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분시 종교성향이 강하여 모든 종교를 수용하면서도 이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이고도 대 통합적 사상으로 승화 발전시켰다. 900여 회 이상의 외세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은근과 끈기, 불굴의 투지에 빛나는 총명과 슬기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정신문화 유산이다. 그러면서 윤리와 도덕이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고, 생명존중과 인간 존중 사상이 육체에 아로 새겨져 있다.

앞으로 미래 세계는 가장 도덕적인 것과 생명과 인간 존중 사상이 가장 투철한 민족이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과 소임을 다 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우리 한민족의 숭고하고 우수한 정신문화가 세계 평화와 행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구촌의 대통합과 인류 평화, 그리고 지상천국 건설에 이바지할 민족으로 한민족이 될 것임을 동서고금의 우수한 예언서와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언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왜 다가오는 미래의 역사의 주역이 한민족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우리 역사와 민족성에 대한 재인식과 바른 이해와 새로운 각오가 필요할 때이다. 한민족이여! 천손민족이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웅비하라! 펼쳐라!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준 시대적 소명이요, 지상명령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의 세계 정치, 종교, 경제, 문화를 볼 것 같으면 이러한 목표는 환상에 불과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목표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대립, 그리고 마찰과 충돌로 파괴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문명의 전환기에 나타난 이상기후, 지진, 자원고갈, 인구증가, 테러와 살상, 전쟁의 제반 현상까지 더하고 있다.

물질문명의 한계

현대 서양의 물질문명과 황금만능주의가 삶의 중요한 수단과 목적이 되어 동양의 숭고한 정신문명까지 좁혀 들어가는 인류사적 지구적 위기의 형국에 놓여 있다. 압담하게도 미래의 대인과 희망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느낌마저 받는다. 전 지구적 혼란과 위기, 인간존엄성과 생명의 존엄성 상실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일찍이 서구의 물질문명의 한계가 동양의 정신문명으로 전 지구적 재난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동서양의 지성들은 시사하고 있다. 인류 역사가 흘러오면서 인류는 농업, 도시, 사상, 산업, 지식혁명의 다섯 번의 혁명을 거쳐왔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정신혁명의 시대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 문제 해결의 중심에 동양의 정신문명, 그 가운데서도 한민족이 구원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즈음에 세계의 중심에 "한류가 급부상"하는 것

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미처 간파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일찍이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예언자적 비전과 무한한 격려와 사랑을 담고 '한국은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바 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동방예의지국, 도덕군자의 나라, 순결하고 깨끗한 나라, 정이 많고 사람 살기에 안전한 나라로 동서양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독일의 그라픽 작가이자 신비주의 사상가인 카타리나 베버 부인은 새로운 문명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한된 기독교 생활문화권의 탈피와 메시아의 출현 장소로 '아시아'를 내비치고 있다. 현대 서구문명의 위기와 구원의 길, 새로운 정신적 이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 출현은 아시아에서 기대하고 있으며, 곧 신의 섭리라고 하였다.

성경 창세기 9장 27절에도, '야벳은 창대하게 되지만 썸의 장막에 거하리라고' 예언하는 동시에 '함의 자손인 가나안은 형제의 종이 되리라고' 하였다. 성경 예언대로 물질문명의 번성을 가져온 야벳의 후손인 백인들이 홍익인간(弘益人間) 사상의 가치를 앞세우며 정신문명의 개벽을 알리는 한민족(썸)의 직계자손의 그늘(장막)에 거하는 시대로 진입했다.

게오르그는 25시 세상에 알려진 루마니아 작가로서 인간을 절망에서 구원할 열쇠가 한국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한국은 동아시아와 러시아가 시작되는 '태평양의 열쇠'라고 했다. 그는 세계의 모든 난제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인류는 한 몸이다 Humanity is one body

본래 사람이면 다 한 몸이요, 한 피인 것이다.
By nature, all humans are one body and one blood.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한 몸이다.
Every person, simply by being human, is part of the same body.

하지만, 한 몸을 남의 몸처럼 여기며, 서로 서로 남으로 여기는 그릇된 생각이 현재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
Yet, a mistaken belief dominates human hearts—seeing others as strangers, not as parts of the same body.

그러한 생각이 바로 욕심을 일으키는 욕심의 영이며, 분열을 일으키는 분열의 영이며,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 의식이다.
This belief is the spirit of greed and division—the very consciousness of "I" that separates.

'남'이라는 것을 의식만 해도 벌써 분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Even being aware of "others" begins the process of division.

'나'라는 존재 의식은 '나' 말고는 다 '남'으로 여기는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나'만 잘 살려는 욕심이 나오고 분열과 싸움이 생긴다.
The "I" consciousness views everyone else as "others," birthing selfish desires, conflict, and division.

우리의 몸 자체가 어머니 아버지의 피로써 조성되어진 몸이다.
Our very bodies are formed from the blood of our mother and father.

계속해서 올라가면 우리는 인류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피로써 만들어진 것이다.
Tracing back, we are all formed from the divine blood of our common Ancestor—God.

그러므로 인류는 같은 피요, 한 혈통이요, 한 형제이다.
Therefore, humanity is of one blood, one lineage, and one family.*